

제17회 포은문화제 온라인 포은골든벨 문제은행

※아래 문제는 온라인 포은골든벨 문제은행이며 실제 골든벨에서는 변형되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의 생애와 업적

1. 포은 정몽주선생은 1337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너져 가는 고려를 위해 외교관으로서, 젊은 후학을 양성하는 성리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 문학에도 뛰어나서 여러 수의 시조를 남기셨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 단심가

2. 포은선생의 묘가 이곳 모현읍 능원리에 쓰이게 된 것은 선생이 돌아가신지 십 수 년 지난 후, 선생의 묘를 이장하기 위한 천장행렬이 개성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지금의 수지구 풍덕천동 쪽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도중 회오리바람이 불어 바람에 날린 이것이 지금의 이곳에 떨어져서 묘를 쓰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명정

3. 포은선생 묘소 바로 옆에는 포은선생의 증손자사위 되시는 분의 무덤이 있는데 이분은 세조가 총애하던 신하였습니다.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예종 때에는 훈작을 받고 연성부원군까지 올랐습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저헌 이석형

4. 충렬서원은 포은선생의 뜻을 기리며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기위한 유생들이 학문을 닦았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액을 받았으나 지역 유림들에 의해 운영된 서원이었기에 사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에 맞서 사학에 반대가 되는 관학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 : 향교

5. 포은정몽주 선생의 묘 입구에는 신도비와 비각이 세워져 있고 그 옆으로 붉은색으로 칠이 되어있고 높은 창살 같은 모양의 문을 지나야 묘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신성한 묘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창살 같은 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 : 살문

6. 태종 이방원이 포은선생을 회유하기 위해 시조 한 수를 읊었고, 그에 답가로 포은선생님도 시조를 지었는데, 이 시조의 제목은 각각 무엇일까요?

정답: 여가, 단심가

7. 포은 문화제는 포은 정몽주 선생님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포은문화제는 올해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일부 경연대회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열리는 포은문화제는 올해 몇 회째일까요?

정답 : 17회

8. 이곳은 포은선생의 뜻을 기리며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한 유생들이 학문을 닦았던 교육기관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액을 받았으나 지역 유림들에 의해 운영된 서원이었기에 사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사학기관으로서 포은 정몽주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교육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 : 충렬서원

9. 포은 정몽주 선생은 1337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려말 무너져 가는 고려를 해 외 교관으로서, 젊은 후학을 양성하는 성리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몽주 선생님을 다르게 부르는 호칭으로 자와 호와 시호가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자는 달가이며, 우리가 잘 아는 포은은 호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받은 시호는 무엇일까요?

정답 : 문충공

10.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고려를 지키고자 하는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지은 시조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 하여가

11. 정몽주선생의 천장행렬이 지나가던 길목에서 잠시 쉬는 동안 명정이 날아갔다는 풍덕천에서 정몽주선생의 묘역을 지나 광주로 43번 국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몽주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 도로의 이름은 충절의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이 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포은대로

12. 충렬서원은 원래 죽전에 있던 죽전서원이 임진왜란에 불에 타면서 옮겨온 서원입니다. 이곳 모현으로 옮겨온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4분이 배향되어 있습니다. 이 4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포은 정몽주, 설곡 정보, 죽창 이시직, 추담 오달제

13.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때 정몽주와 개혁의 뜻을 함께 한 절친이었으나 조선개국의 갈림길에서 서로 적이 된 사람입니다. 조선개국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삼봉 정도전

14.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의 정국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정계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의 의지는 고려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온건개혁파와 새 왕조를 세워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자 급진개혁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포은 정몽주 선생은 어디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 : 온건개혁파

15. 조선시대에 지방의 유림에 의해 만들어 진 사립학교는 서원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 태어나거나. 살았거나. 묘가 있는 곳에서 서원을 세워 지사를 지내고 학생들이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선조 9년(1576) 이계, 이지를 비롯한 지방 유림의 공의로 정몽주 선생과 조광조 선생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서원으로 처음에는 죽전동에 세워져 죽전서원으로 불리다가 임진왜란 때 건물이 소실되어 선조 38년에 정몽주 선생의 묘소아래 중건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사의 주인공인 포은 선생님을 주 배향 인물로 하고 있으며 모현에 있는 서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충렬서원

16. 옛날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 자, 호, 시호 등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이후 임금이 훌륭한 신하에게 내려 주는 이름은 무엇이며 정몽주 선생님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시호, 문충

17. 고려 말 '삼은(三隱)'은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학자로, 고려 왕조에서 벼슬하였으나 이성계의 조선 건립 당시 '두 왕조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불사이군)'을 주장하며 조선의 개국에 참여하지 않는 세 사람을 말합니다. '삼은'으로 불리던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또는 도은 이숭인

18. 현재 북한 개성에 있는 다리로 옛 이름은 '선지교'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포은 정몽주 선생이 이 다리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의 철퇴를 맞아 돌아가신 후 그 때 포은 선생이 흘린 피의 자국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고 그 옆에서 대나무가 자라올라오면서 다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선죽교

19. 우리나라의 향교나 서원의 구조는 사당과 강당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학후묘, 전묘후학의 구조가 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고 사당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충렬서원의 사당에는 모두 4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이 충렬서원의 구조는 어떤 형태일까요?

정답 : 전학후묘

용인의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

정암 조광조

21.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당시의 사서오경에 대한 이해도를 필기와 구두시험으로 평가하고 문학 시험인 부(賦)와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문장능력을 평가했으며 당시의 중요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인재를 뽑고자 했던 과거시험의 의도와 달리 해가 갈수록 과거제의 폐단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종종 임금때의 개혁 정치가였던 정암 조광조 선생은 현인들을 과거 시험이 아닌 추천에 의해 선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기존 과거의 틀을 깨는 것으로 글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닌, 국가 개혁을 위한 실천적인 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재를 찾는 취지의 새로운 과거제 실시였습니다. 정암 조광조 선생이 주장한 이 과거제는 무엇일까요?

정답 : 현량과

22. 정암 조광조 선생님을 제사 지내는(배향)서원은 심곡서원으로 정암선생이 부친의 장례를 모신 후 여막을 짓고 시묘하던 수지구 상현동에 있습니다. 이 서원은 1650년에 창건되고 같은 해에 사액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사원 철폐령에도 없어지지(훤철) 않았습니다. 이 심곡서원이 2015년1월28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적 몇 호로 지정 되었을까요?

정답 : 사적 530호

23. 조선 중종 때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들의 급격한 개혁정치, 훈구파들의 위헌삭제 등에 불안을 느낀 훈구파들이 사림들을 제거하고자 사건을 꾸밉니다.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을 써 놓고 그곳에 꿀을 발라 벌레가 갉아먹게 하여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을 제거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 기묘사화

24. 조선중기 성종 때부터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림세력은 훈구 세력의 비리를 규탄하면서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두 세력 간에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사화라고 합니다. 조선중기에 일어난 4대 사화는 무엇일까요?

정답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25. 상현동 심곡서원에 배향된 조광조 선생님의 시호와 관련 있습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이 중학교는 조광조 선생님의 시호를 따서 교명이 유래되었습니다. 심곡서원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문정 (중학교)

26. 조선 중종 때의 명현인 정암 조광조 선생을 비롯하여 유학자로 식견이 높았던 방은 조광보, 희곡 조광좌, 음애 이자 선생 등 네 분이 도의로 친분을 맺고 은거하며 노년생활을 즐기기 위해 기흥구 지곡동 두암산에 정자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정자의 이름을 사은정이라고 하는데, 사은은 4가지 일을 낙으로 삼아 여생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 네가지 은혜로운 일- 나물캐고 나무하고 밭갈고 낚시하고

27. 조선 시대 당파 싸움으로 사림 출신의 조정 관리 및 선비들이 반대파인 훈구파에게 몰려 탄압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라고 하는데, 조선 중기 연산군 때부터 명종 즉위년까지 4차례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이 '4번의 사화' 이름을 쓰세요.

정답 :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28.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화를 입은 4대 사화가 있습니다. 그 중 1519년(중종14)11월에 남곤, 심정 등의 재상들에 의해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세력이 화를 입은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정답 : (O)

29.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학자 정암 조광조 선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2011년부터 수지구 심곡서원 일대에서 개최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조광조 문화제'로 '큰선비 조광조'라는 특별공연과 함께 정암선생을 기리는 서예전과 전통놀이, 국악공연 등이 함께 열리는 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 (x) 정암문화제

30. 정암 조광조 선생의 신위는 포은 정몽주 선생님과 함께 죽전동 죽전서원에 배향되어 있었으나, 병자호란으로 불탔으며 후에 정몽주 선생님은 충렬서원에, 조광조 선생님은 심곡서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답 : (x) 임진왜란

31. 이 사람은 연산군 때 폐비윤씨의 복위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갑자사화에 연류되어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났지만 조광조 선생이 기묘사화로 사사되자 임금에게 조광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의 잘못을 규탄하여 유배되었다. 그 후 벼슬에 오르지 않았다. '과즉물탄개' 즉, '잘못을 저질렀으면 고치기를 꺼리지마라'는 그가 남긴 말로 유명하며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에 이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일까요?

정답 : 십청헌 김세필

32. 조선 중종 때의 명현으로 호는 음애입니다. 기흥구 지곡동이 고향으로, 중종반정 후 홍문관 부제학, 승정원 승지, 우참찬을 지내면서 기묘사림인 정암 조광조 선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 때 관직을 삭탈당하고 옥에 갇혔던 이분은 누굴까요?

정답 : 음애 이자

허씨 5문장

34. 처인구 맹리에는 조선시대 최고 뛰어난 문사로 알려진 허균과 그의 아버지 허엽, 두 형 허성과 허봉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 조선 사회의 절대 권위에 도전한 대표적 풍운아이자 이단이며 천재였던 허균이 쓴 소설로 당시 정부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그의 개혁사상을 반영하며 적서구분으로 인한 신분적 차별을 비판하면서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과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설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을도국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 홍길동전**
35. 조선 전기의 문신인 허균의 아버지 허엽은 강원도 관찰사로 강릉에 있으면서 동해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해 두부를 만들어 먹고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두부가 아주 맛있다는 소문까지 나자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 두부의 이름은 허엽의 호를 따 '00두부'라 하였습니다. 이 두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초당두부**
36.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는 허균을 비롯한 허씨 5문장 묘역이 있으며 이곳에 이 사람의 시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7살에 요절한 조선의 3대 여류 시인 중 한명으로 명나라 사신 주지번에 의해 명나라에서 그녀의 시 213수가 실린 시집이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고 일본에서도 간행되었습니다. 허균의 누이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허난설헌**
37.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은 그 당시 모순된 사회상을 비판하며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쓴 이 사람의 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교산 허균**
38. 처인구 원삼면 맹리 일대는 양천 허씨가 입향하여 450년 이상 세거하고 있는 동족촌입니다. 특히 맹골과 능안마을은 허균과 '허씨5문장' 이 있는 양천허씨 세장지가 위치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허씨 5문장'은 허균의 아버지 초당 허엽을 비롯한 누나 허난설헌과 허균의 삼형제 허성, 허봉, 허균을 일컫는 것으로, 원삼면 맹리에는 허씨 5문장의 묘소가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정답 : (X) 허난설헌의 묘는 광주 초월리에 있다.**
39. 교산 허균의 작품으로 최초의 한글소설이자 조선시대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역사의식을 담은 사회비판적소설로서 서민의식, 사회제도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는 고전소설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전우치전이다 **정답 : X (홍길동전)**

반계 유형원

40. 이 사람의 묘는 백암면 석천리에 있으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전라도 부안 땅에 내려가 초야에 묻혀 학문 연구와 저술에 일생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곳에서 백성들의 사회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가 잘 살고,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국가체제의 개혁안인 ‘반계수록’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유형원**
41. 유형원선생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농민들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여 양대 전란으로 인한 파괴와 좌절, 이로 인한 사회적 모순, 전반적 경제침체와 동요로 인한 집권체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저작입니다. 총26권 13책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선생이 부안에 22년동안 살면서 백성의 생활과 사회 실상을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민, 부국을 이루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이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반계수록**
42. 이곳은 어디일까요? 백암면 석천리에 묘소가 있는 반계 유형원 선생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반계수록>을 이 곳에서 집필했다고 합니다. 반계수록은 선생이 그동안 겪은 농촌 생활에서의 체험과 농촌 경제의 안정책 등이 제시된 경세치민의 책으로 정책론이라 할 수 있는 저서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작지를 분배할 수 있다는 사상적 특징이 담겨 있는 반계수록을 지은 이곳은 전라북도에 있으며, 그의 호 반계도 이곳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정답 : 우반동**

변암 채제공

43. 변암 채제공 사후에 정조대왕이 채제공의 명복을 비는 글을 새긴 것으로, 1978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액은 허목의 전서풍으로 기이하고 예스러운 맛이 나는데, 비문은 해서체로, 음기는 비의 앞면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이 비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채제공 뇌문비**
44. 이 사람은 비운의 죽음을 맞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복권하였고, 이때부터 어지러운 당론을 없애는 의리를 밝히고 탐관오리를 징벌,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하며 권력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력투구하였습니다. 수원 화성 성곽 축성에 모든 설계 및 경영을 지휘하였으며, 신해통공을 통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변암 채제공**

45. 정조의 오른팔인 채제공 선생님은 정조를 보좌하여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조선 후기 국역을 지던 육의전과 시전 상인이 서울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의 지역에서 난전을 금지하고, 특정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정조의 명령으로 채제공선생은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시전상인이 가진 이 권리를 폐지하였습니다. 시전상인이 휘둘렀던 이 권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 금난전권

46. 이 사람은 조선 영조에서 정조에 걸친 기간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로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모든 설계 및 경영을 총지휘했으며,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상업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분의 묘소 입구에는 정조 임금의 친필로 내린 뇌문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약용이다.

정답 : (X) 채제공

독립운동가

47. 이동면 화산리에서 출생한 이분은 호가 국은이며 본관은 전의입니다. 16세에 관립영어학교를 졸업하였고, 28세 때 영국·벨기에 공사관의 참사관으로 부임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관으로 전력을 다했으나 기울어져가는 대세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05년 5월 12일 형과 부인에게 유서를 남기고 독약을 먹고 순국한 이 사람의 순절은 여러 순국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충군보국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국은 이한응

48. 이분은 주민전권 대사와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특명전사로 참석한 뒤 군부대신에 임명되신 분으로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자 을사5적의 처형을 주장하고 조약파기를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자결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계정 민영환

49. 을사조약은 1905년 일제가 강제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기위해 맺은 조약입니다. 그 후 일제가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을 이유로 우리의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용인의 인물인 김혁장군도 이 군대에 있다가 군대가 해산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한 때는 언제 일까요? 정답 : 1907년

50. 용인에는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1985년 김혁장군 순국 50주기를 기하여 경주김씨 문중에서 '오석 김혁 선생 독립운동기념비'를 제작하여 세웠지만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기흥구 구갈동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그곳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석이 세워진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김혁 공원

51. 오늘 포은 문화제를 열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종손으로 일제 말기 학병으로 끌려갔지만 탈출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만주동포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정철수**
52. 이 분은 1875년 기흥구 농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24세에 대한제국 무관학교 1기생으로 입학하여 육군장교가 되었지만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919년 용인에서 3·1만세를 주도했다고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아 만주로 망명하여 흥범도 장군과 의용군을 조직해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뛰어 들어 청산리 대첩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성동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부교장인 김좌진 장군과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9년간의 옥고를 치르다 1939년 64세의 나이로 순국한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김혁 장군**
53. 이분은 항일의병이라 부릅니다. 처인구 양지면 출신으로 1907년 희미해가는 정국을 개탄하고 포군 32명을 모집하여 의병대를 만들어 일본 기병대와 접전을 벌여 격퇴하였습니다. 그 후 이천, 광주, 용인, 죽산 등지를 전전하면서 크게 위세를 떨쳤던 바, 봉기한 이후 이천읍 우편소와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고, 용인의 굴암사[지금의 묵리 용덕사]에서 일본 토벌대와 교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혁혁한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1907년 11월 10일 수원수비대에 체포되어 당년 36세 나이로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옥여 임경재**
54.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대한 저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전개 되었습니다. 이 분은 용인 출신으로 만주의 독립운동 조직인 신민부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김혁 장군과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독립군 투쟁의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여준 선생**
55. 이 사람은 1906년 용인향교 내에 용인 최초의 신식학교인 명륜학교를 세워 구한말 나라의 위기를 근대교육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명륜학원에서는 전통 한학과 역사 및 과학 등 근대적인 교과가 혼합되어 과도기적 근대학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륜학교를 졸업한 그의 제자로 만주로 건너가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김혁 장군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38년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심곡서원에서 병을 얻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동전 맹보순**
56. 여준 선생은 1862년 죽산군 원삼면(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태어났습니다. 향리에서 한문을 공부한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이상설, 정순만, 이동녕 등과 함께 민중의 애국사상고취를 위한 교육계몽의 필요성을 깨닫고 민족교육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에 근무를 하는 한편, 1908년 용인 원삼면 죽릉리에서 학교를 세워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여준선생이 원삼면 죽능리에 세운 학교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삼악학교**

57. 1907년 경기도 이천에서 결성된 의병 부대의 좌익장으로 용인, 죽산, 안성, 이천 등 곳곳에서 대일 항쟁을 이끌었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장은 누구일까요?

정답 : 임옥여

58. 민영환 열사는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1월30일에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하였습니다. 당시 자결한 이후 피 묻은 칼을 상청 마루에 두었는데 이듬해 마루의 피 묻은 곳을 뚫고 소나무가 올라와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절송'이라고 부릅니다.

정답 : (x) 대나무, 죽절

59. 대한제국의 육군 정위였던 김혁 장군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고향으로 내려와 3.1만세 운동에 참여한 후 만주로 건너가 그 곳에서 의용군과 대한독립군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1920년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이끌었고, 1925년에는 신민부의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신민부에서 성동서관학교를 설립하자 김혁장군은 교장에 김좌진 장군은 교감을 맡아 약 5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습니다. 1928년 신민부에서 총회를 개최하던 중 일제경찰에게 잡혀 감옥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정답 : (X)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셨다.

60. 우리나라에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역사상 최초의 항일 순국열사는 계정 민영환입니다.

정답 : (x) - 국은 이한응

61. 모현면 오산리에 오인수 의병장을 중심으로 아들 오광선 장군과 딸 오희영, 오희옥 등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을 기리는 <의병장 해주 오공 인수 3대 독립항쟁 기적비> 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답 : (X) - 원삼면 죽능리

62. 오달제는 대한 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으로 3·1운동에 참여한 후 일제의 경찰을 피하여 만주로 망명한 후 김좌진과 함께 신민부를 조직하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정답 : (x) - 김혁

63.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896년 원삼면 죽능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성묵이다. 고향의 삼악학교를 마치고 20세의 나이로 만주로 망명해서 이름을 00으로 바꿨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사교관으로 재직, 서로 군정서의 별동대장과 경비대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아버지는 오인수 의병장이며 부인인 정현숙과 두딸 희영과 희옥의 아버지가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오광선

64. 유근은 1898년 남궁억 등과 함께 <황성신문>을 창간하였고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자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신문에 게재하는 등 일제의 부당성을 폭로하였습니다.

정답 : (O)

사주당이씨

65. 사주당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학문을 장려하는 부모 아래에서 사서삼경을 섭렵하였습니다. 출가하여 네 아이를 낳아 기른 경험을 바탕으로 삼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한권의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글이 완성된 후 아들 유희가 장과 절을 나누고, 한글 해석글을 덧붙여 태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태교신기

66. 이 분은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학문을 장려하는 부모 아래에서 사서삼경을 섭렵하였습니다. 출가하여 네 아이를 낳아 기른 경험을 바탕으로 삼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태교신기'를 정리하였다. 글이 완성된 후 아들 유희가 장과 절을 나누고, 한글 해석글을 덧붙여 태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교신기』가 완성되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사주당 이씨

기타 인물

67. 숙종 때 소론의 거두로 자는 운로, 호는 약천, 본관은 의령입니다. 효종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부 좌윤을 지냈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윤희 · 허견 등 남인들의 횡포를 상소하였다가 오히려 남해로 유배되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지냈고, 숙종이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결정하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일생을 보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라는 시 한 수가 《청구영언》에 전합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약천 남구만

68. 숙종 임금 때에 안용복, 박어둔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 일본 선원들에게 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안용복은 일본 태수에게 울릉도, 독도는 조선 땅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한 부당함을 항의함으로 영토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 조선은 관리를 파견해 조사하게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일본 막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답변 받았습니니다. 이 때 2년에 한번 씩 울릉도와 독도에 관리를 파견해 조사하고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 약천 남구만

69. '나비박사 석주명'이 이 사람의 그림속에서 무려 37종의 나비를 암수까지 구별해 낼 정도로 뛰어난 관찰력과 정확한 세필로 그린 나비그림이 특징으로, 병풍을 그릴 때 꼭 열 마리 이상은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려놓은 나비가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전하는 이 사람은 본관은 의령이며 약천 남구만 선생의 6대손으로 철종과 고종 때 활동한 문인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일호 남계우

70.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도암 이재 선생이 지은 관혼상제에 관한 종합참고서로, 사계 김장생의 <상례비요>의 체재를 참고하면서 관례와 혼례를 덧붙이고 여러 학설을 참고하면서 이 책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례참고서로서,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보급된 예서로 평가되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사례편람

71. 고려 시대 후기의 대 문장가인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명종이 신하들에게 <소상팔경>시를 짓도록 하였을 때 어린 나이로 장편을 지어 이인로와 더불어 절창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주필(글씨를 흘려서 빨리 씀)로 이름난 시인으로 무신의 난 이후의 피폐한 농촌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도원가>가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묘 앞 하단에 고충이 있는데 전하는 말로는 순장자의 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매호 진화

72.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한 3학사 중 한 사람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 산성에 들어가 끝까지 척화를 주장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한 뒤, 청나라에서 척화론자의 처단을 요구하자 스스로 척화론자로 나서서 윤집, 홍익한 등과 함께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문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항변하다 심양성 서문(西門) 밖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추담 오달제

73. 이 사람은 조선 숙종·영조·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주입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죽산에서 난을 토벌하여 분무공신 1등공신이 되었고 영조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무덤은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덤 앞에 보기 드물게 무인석이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오명항

74. 조선 정조 임금 대의 어영대장을 지낸 무신으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에 이 사람이 살던 가옥이 있습니다. 이 가옥은 안채 남쪽 지붕의 망와에 '건륭 18년 계유일 조작'이란 글이 양각된 기록으로 보아 영조 29년, 1720년에 건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이주국 장군

75. 고려말에 조선초의 문신으로 청렴결백과 효로 이름난 용인의 역사인물입니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우왕에게 고변한 고려충신이자 조선개국 원종공신으로 대사헌과 판한성부사를 역임하고 청백리에 녹선되었습니다. 송례문과 풍남문축성에 관여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죽정 최유경

76. '생거진천 사후용인'의 유래에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고향은 진천이지만 묘는 현재 용인 기흥구 공세동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생전에는 진천에서 부친을 모셨고 사후에도 부친의 묘소 아래에서 여막을 짓고 3년간 시묘를 살다가 자신이 죽으면 그 자리에 묘소를 마련하라고 유언함으로써 죽어서도 부친을 가까이서 모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지극한 효성에서 이러한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이성계를 도와 개국원종공신이 되었으며 한양성 축성 책임을 맡았으며 국보 제1호인 송례문과 풍남문을 건립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 죽정 최유경

77. 조선초기의 문신이자 학자입니다. 세종 23년(1441) 사마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장원급제한 후 14년간 집현전에서 여러 관직을 맡았다. 세조의 총애를 받아 황해도 관찰사·사헌부 대사헌 등의 요직을 거쳤으며, 성종대에는 손성좌리공신으로 연성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그의 묘는 포은 정몽주의 묘역 오른쪽에 있는데, 묘역 안에는 묘비·문인·석·향로석·상석(제사 지낼 때 음식을 차려 놓도록 무덤 앞에 마련해 놓은 돌) 등의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의 증사위가 되기도 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 저헌 이석형

78.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관은 연안. 자는 백옥(伯玉), 호는 저헌(樗軒)으로 1453년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정권을 장악하자, 정인지·노효담·신숙주 등과 더불어 훈구파의 대표적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1456년 사육신사건이 일어나자, 사육신의 절의를 칭송하는 시를 익산 동헌에 남겨 죄를 물어 벌을 주어야 한다는 조정의 대신들의 논의가 있었으나 예조참의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의 묘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 바로 옆에 있으며 포은 정몽주 선생의 증손자 사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저헌 이석형

79. 용인자연휴양림에는 용인에 연고가 있는 작고한 문인들의 문학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열 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시비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중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으로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으로 '나그네'가 문학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인은 누구일까요?

정답 : 박목월

80.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며 1908년 11월 잡지[소년]을 창간하고 신체시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여 한국현대시를 태동시킨 선각자로 불리는 분의 묘소에 용인시모현면에 있습니다. 한 때 친일 행적으로 오명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의 문학적인 업적은 우리 문학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육당 최남선

81. 세종 임금 때에 군함 227척, 군사 1만7천명을 거느리고 마산포를 출발해 대마도를 정벌한 사람입니다. 이후 대마도는 경상도에 예속되고 우리나라 해안지역을 노략질하던 왜구들의 활동이 임진왜란 전까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죽자 세종 임금은 3일간 조회를 중단하였으며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 말하며 비통해 했다고 전합니다. 이 사람은 묘는 현재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 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이종무 장군

82. 1418년 서해안에 왜구가 창궐해지자 세종대왕은 최윤덕 장군을 삼도도통사 유정현과 함께 1419년 병선227척 군사 1만7천명으로 발진하여 대마도로 보내어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정답 : (x)- 최윤덕이 아니고 이종무를 보냈다.

83. 이 사람은 조선의 천재시인으로 '해동강서파'로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연산군 대에 간신 유자광과 유자광에게 아첨하는 신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직언을 싫어하는 연산군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고한다' 라는 죄목으로 파직, 이후 갑자사화에 연류돼 사사당했습니다. 이후 절친인 이행이 그의 시를 모아 <읍취헌유고>가 편찬되었으며 이 사람의 묘는 처인구 원삼면 식금리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 읍취헌 박은

84. 임진왜란 때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경기도 일대의 왜군을 격퇴하고 서울을 수복할 계획을 세웠으나 연천군에서 왜군의 야밤 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이 사람에게 심한 타격을 받은 왜군은 이 사람의 관을 쪼개고 그의 머리를 베어 서울 거리에 전시하였는데 60일이 지났어도 마치 산 사람과 같았다고 전한다. 이 사람의 묘는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누구일까요?

정답 : 심대 장군

85. 우리 고장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맏딸의 무덤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에 있습니다. 그 공주는 누구일까요?

정답 : 경신공주

86. 통일신라 말 용인지역의 호족으로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용인이씨의 시조가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이길권

87.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무릅쓰고 천주교 교리와 문화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1984년 천주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옥중에서 세계지리에 관한 책을 만들었고, 영국에서 만든 세계지도를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충청도 당진 솔피에서 태어났으나 박해를 피해 7살에 용인 양지의 골배마실로 가족과 함께 이주해 살았으며 16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하여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여 25살에 중국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귀국하여 사목활동을 하던 중 새로운 성직자의 해로 개척을 하다가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김대건

용인의 문화재

88. 원삼면 사암리에는 세 개의 큰 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이곳에서 마을의 제사를 지내거나 정월 보름날에 치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농촌테마파크 근처에 위치한 이 세 개의 큰 돌을 ‘고인돌’이라 부르며 마을을 표시하는 표시석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정답 : (X)-고인돌이 아닌 선돌

89. 원삼면 농촌테마파크 옆에 위치한 사찰인 법륜사 관음전 앞마당에는 삼층석탑이 서 있습니다. 이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석탑의 양식을 이어받아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석탑이 조성된 이후 이 자리에 계속 있어왔습니다. 1996년 이후 이 석탑을 기반으로, 석탑이 있던 이 곳에 법륜사가 창건 되었습니다 .

정답 : (X)- 이 탑은 절이 창건될 때(1996~2005) 서울에 사는 신자에게 보시 받은 것으로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유래나 원래 탑이 있었던 사찰이 어느 곳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90. 왕의 능이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의 묘에는 석인이나 석수 묘비 석등 등 여러 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손에 패와 같은 홀을 들고 있는 석물은 문인석, 갑옷을 입고 검을 쥐고 있는 석물은 무인석이라고 부릅니다. 정답 : (O)

91. 원삼면 미평리에는 화강암으로 조성된 가장 규모가 큰 석불이 서 있습니다. 석불은 전체가 하나의 큰 돌로 만들어졌는데, 머리위에는 보관 대신 자연석을 올려 놓았고 얼굴은 네모모양에 가깝고 신체에 비하여 큰 편입니다. 개인이나 마을의 안녕을 빌던 민불로 마을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불상이 한손에 약병을 들고 서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기에 어떠한 병도 모두 고쳐주시는 약사여래불이라 불렀습니다. 정답 : (X)-미륵불. 미륵이 사는 마을

92. 원삼면 문촌리에는 조선 정조 대의 무신이었던 이주국 장군의 고택이 있습니다. 이 고택은 1753년 영조 임금 29년에 지어진 것으로 고택의 솥을 대문을 들어서면 문간채가 일자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 두 칸의 방과 네 칸의 광으로 꾸며졌습니다. 그 앞에는 네 칸의 사랑채가 자리를 하고 있으며 안채의 마당이 있습니다. 이 고택은 지금도 이주국 장군의 후손들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답 : (X)-100년 전까지는 후손이 살았다 하나 지금은 정병하씨의 소유

93. 이주국 장군은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이고 조선2대 임금인 정종의 서자 덕천군의 후손입니다. 건장하고 뛰어난 용모와 강직한 성품으로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정조로부터 오백이라는 당호를 하사받았는데, 통신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원삼면 문촌리에 있는 이주국 장군의 묘에는 무신이었기에 석상으로 무인석을 세우고 그 뒤에 왼쪽에 양 모양, 오른쪽에 말 모양의 석상을 세웠습니다.

정답 : (X)-무인이었지만 문인석을 세움, 양석, 말석을 모두 세운 것을 특이한 경우이다.

94. 용인에는 2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이 중 용인향교는 구성향교라고도 지칭되지만 용인향교가 올바른 명칭입니다. 건립 연대는 대략 조선 정종2년(1400)경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명륜학원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답 : (O)

95. 지식묘는 청동기 시대이 대표적인 무덤형식으로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현 지식묘는 현재 2기가 남아 있으며,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보존상태가 완벽합니다. 모현 지식묘는 남방식 고인돌 형식인 바둑판식이다.

정답 : x - 북방식

96. 용인에는 2개의 향교와 3개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천서원은 정조 때 지방유림의 공의로 도암 이재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동면 천리에 창건하여 사액되었으나, 1868(고종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복권되었습니다.

정답 : (x) - 복권되지 못했다

97. 사례편람은 조선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도암 이재 선생이 지은 관혼상제에 관한 종합참고서입니다. 이 책은 이름 그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례 참고서로서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보급된 예서로 평가됩니다. 정답 : (O)

98. 서리 중덕 백자 요업지는 1984년 제1차로 호암미술관에 의하여 발굴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벽, 건물지, 요지 등 대체적인 규모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서리 백자 요업지는 10세기를 전후한 가마터로 밝혀졌으며, 조선시대부터 백자를 굽던 가마터입니다

정답 : (x) - 고려시대

99.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는 일명 용화사지 또는 획주사지라고 전해지는 절터가 있습니다. 이 절터에는 미륵입상이 아미타전이라는 전각에 봉안되어 있는데, 이 미륵입상은 장승이나 문인석을 방불케하는 모습이어서 장승의 일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후기에 조성되었다고 하는 이 불상은 직육면체의 몸통에 장방형의 얼굴과 높은 관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답 : (X) 용화전에 봉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널리 유행하는 미륵신앙의 일종으로 조성

100.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마을에 있는 선돌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일종의 토속 신앙 유적으로 알려져 있어 사암리 일대는 선사시대 때부터 주거 부락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답 : (O)

101. 이곳은 1400년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으며 1986년 5월 31일에 용인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에 있었으나 1894년(고종 31)에 기흥구 언남동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2018년 9월 조선 중기 유교 건축물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이곳은 용인향교이다

정답 : (O)

102. 공자와 여러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의 기능을 담당했던 향교는 주로 그 지역의 유림들이나 문중에서 설립하였다.

정답 : (X)- 나라에서 세운 관학이다.

103. 고려 고종 18년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을 시작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는 1270년까지 40여년을 몽고에 대한 항쟁이 이루어졌는데, 고종 19년 9월 몽골은 제2차 침공을 감행하였고, 몽골장수 살리타이는 중원경으로 가는 도중 이곳에 이르러 김윤후와 부곡민들에게 의해 화살을 맞고 사살당함으로써 몽골의 제2차 고려침공을 물리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큰 승리를 거둔 이곳은 할미산성입니다

정답 : (x) - 처인성

104.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지배자의 무덤이라고도 하고, 주술적인 의미에서 권력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모현면 왕산리와 양지면 주북리 등에 자리하고 있는데, 한자로는 지석묘라고 부르는 이것을 순수 우리말로써 솟대라고 합니다. 정답 : X 고인돌

105.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고인돌의 종류는 탁자식과 바둑판식이 있습니다. 모현면 왕산리 고인돌유적은 탁자식으로 보존이 매우 잘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을 축조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무덤방 튼튼하게 막는 작

업으로 꿩돌로 ‘마무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것을 **마구리돌**이라고 부릅니다.

정답 : 0

106. 이 불상은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불상으로 높이 4.05m, 가슴 폭 1.3m입니다.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불상앞이 막히면 마을에 흉사가 들고 화재가 생긴다는 속설이 있어 불상 전면엔 일체의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칭 미륵불로 불리는 이 불상은 감로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이다.

정답 : X **약사보살**

107. 이 곳은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천주교 성지로 ‘숨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천주교 박해 시기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 살며 형성된 교우촌입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사제성소의 꿈을 키웠던 곳이며 사제가 되어 돌아온 후 맨 처음 미사를 드린 곳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 은이성지

108. 문수산 정상에서 남쪽 내리막길로 약 150m 지점에 두 개의 암벽에 각 1구씩 서로 대칭을 이루며 양각으로 보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 중앙에 입체의 불상이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위에 새겨진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라 부를까요?

정답 : 문수사지 **마애보살입상**

109.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에는 마을 한가운데 오른손은 가슴에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고 왼손에 감로정병(약병)을 들고 있는 큰 규모의 석불인 **약사여래입상**이 있습니다. 석불 앞에서 자연석 불단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제물을 차려 예불을 올리거나 치성을 올렸는데 불상 주의를 빙 둘러 돌기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불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곳 미평리는 ‘미륵부처가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미륵뜰**

110. 원삼면 사암리에 나란히 서 있는 커다란 돌로 “어느 부잣집에서 탁발승을 구박했더니 종이 혼자말로 ‘지금 그곳에 큰 돌 셋을 세우며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다’라 하기에 그대로 했다가 부자가 쫓딱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마을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보호하며 마을의 제사를 지내거나 치성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사암리 선돌**

111. 마을이나 절 입구, 길가에 세워 놓은 사람머리 모양의 기둥을 말하며 **장승**이라고도 부릅니다. 장승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융통성이 없어 답답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벽수**

112. 옛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는 수호석으로 호랑이, 사자, 말, 양과 같은 동물모양의 석물을 묘 앞에 세웠습니다. 그것들 중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해 달라는 기원을 담은 석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동물모양의 석물일까요?

정답 : **임신한 암 양**

113. 조선시대에 지방에 설치한 국립 중등교육기관으로 백성에게 유학을 가르쳐 지방문화의 향상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 곳이 향교입니다. 용인시에는 두 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정답 : 용인향교, 양지향교

114. 향교의 뒤쪽에는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 있고 앞쪽에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강당이 있습니다. 즉 서원의 두 가지 기능인 제향과 교육의 용도로 사용하던 두 건물의 명칭을 각각 말해보십시오.

정답 : 대성전, 명륜당

115.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용인향교는 유교의 시조인 공자를 제사 지내기 위한 곳입니다. 공자의 위패는 대성전이라는 건물에 모셔져 있는데, 이 건물의 지붕은 두면이 서로 맞대고 있는 지붕이라는 뜻의 ○○지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붕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 맞배지붕

116. 2008년 대한민국근대유산404호로 지정된 가옥입니다. 이 가옥은 장육진화백이 생전에 거주했던 곳으로 대청 종도리에 묵서되어있는 상량문을 보면 광서20년 (1884년)에 지어진 가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옥 뒤에 있는 2층 양옥은 장육진이 직접 설계하여 짓고 말년에 기거하였으며, 현대는 전시실로 이용되고 있는 이 가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장육진고택

117. 서봉사지는 광교산 동쪽에는 있는 고려시대 절터로 조선 태종때에는 천태종의 자복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이곳에는 고려 명종15년에 세워진 탑비가 남아 있는데, 이 절의 주지였던 스님의 행적을 후대에 알리고자 그의 문하생들이 세운 것으로, 보물 제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스님은 누구일까요?

정답 : 현오국사

118. 기흥구 상하동에는 ‘풍창 부부인 조씨의 묘소’가 있습니다. 풍창 부부인 조씨는 이 임금의 장모이며 인현왕후의 친정 어머니입니다. 경종과 영조의 아버지로 네 차례의 정치주도 집단을 바꿔가며(환국)정치를 하였습니다.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과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이 왕의 여러 부인들입니다. 이 임금은 누구일까요?

정답 : 숙종

119. 부부인이란 호칭은 정1품으로 왕비의 친정 어머니와 왕의 적자인 대군의 부인에게 주는 작호입니다. 그렇다면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는 작호는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 : 부원군

120. 기흥구 보정동에는 삼국시대 고구려가 용인 지역에 세력을 떨칠 때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무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무덤들인데, 이처럼 아주 오래된 무덤들이 모여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

게 모여 있는 무덤들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정답 : (보정동) 고분군

121. 정조 때 지방유림의 공의로 사례편람의 저자인 도암 이재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동면 천리에 창건하여 사액되었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도암 이재 선생의 후손들이 복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원은 무슨 서원일까요?

정답 : 한천서원

122. 1984년 1차로 호암미술관에 의하여 발굴 조사되어, 10세기를 전후한 가마터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 도자역사 편년을 10세기 전후로 끌어 올린 곳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요벽, 건물지, 요지가 확인되어 대체적인 규모까지도 확인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백자를 굽던 가마터로서 현존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갑발과 도편 등의 퇴적물이 쌓여 작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 서리중덕 고려백자 요업지

123.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때의 군창이었던 곳으로, 몽골의 제2차 침공을 승장 김윤후와 부곡민들이 힘을 모아서 몽골군을 맞아 싸우던 중, 화살을 쏘아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함으로써 몽골의 제2차 침공을 물리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40여년에 걸친 항몽전쟁 가운데 최초의 승리이고 용인 지역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맹목 이룩한 승리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후에 의병운동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1977년 10월 12일 경기도 문화재 사적 제 44호로 지정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 처인성

124. 주변 마을에서는 이 고분을 오래 전부터 고려장터라고 불렀으며 일부에서는 천장에 덮개돌이 있어 기반식 지석묘라 지칭하기도 하였으나 198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용인관내의 지표조사에서는 돌방무덤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1986년도 한양대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백제지역문화유적 조사에서 이동면 서리 하반의 고분을 백제시대의 유물로 구분하여 처음에는 이 무덤도 그와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자료로 규정하였으나, 판석이나 할석을 이용하여 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널방벽의 한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든 뒤 봉토를 씌운 동남방향의 무덤으로 고구려 시대의 영향을 받은 무덤으로 확인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이 무덤은 무엇일까요?

정답 : 운학동 돌방무덤

125. 신라 문성왕 때 염거선사가 창건하였고, 신라 말기에 도선국사가 3층석탑 1기와 보살상, 철인 3위를 조성하면서 중창하였습니다. 현재 철인 3위 중 1위는 도난당하고 2위는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박물관에 있는데, 이 철인은 도선국사가 이곳의 산세와 자리에서 솟아나는 기

운이 강해 이를 누르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1990년에 본래의 사찰이 자리하였던 산 아래에 대웅전을 지으면서 윗채와 아래채로 전각이 나누어져 윗채에는 극락전, 산신각, 굴암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선국사가 조성하였다는 파손된 3층 석탑이 남아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로 굴암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용덕사

126. 조선시대에 긴급한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봉수입니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을 피워 외적이 침입하거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였습니다. 봉화는 원래 밤에 올리는 횃불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낮에 올리는 연기도 포함해서 봉화라고 불렸습니다. 봉화는 전황에 따라 5번까지 올리는 5구분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봉수대마다 봉수대 5기가 있었습니다. 용인에도 봉수대가 설치되었는데, 원삼면 맹리의 건지산 봉수대와 포곡읍 마성리에 이 봉수대가 있습니다. 마성리와 삼가동과 동백을 잇는 산의 이름이기도 한 이 봉수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석성산 봉수대

127. 조선시대에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기어 궁가, 종묘, 문묘, 향교, 서원 등의 건물 앞에 세웠던 이 비석은 무엇일까요?

정답 : 하마비

128. 조선의 왕능, 종묘, 향교나 서원 등의 앞에 세우던 붉은 칠을 한 문으로. 둥근기둥 두 개를 세우고 지붕이 없이 윗부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는 태극 문양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문은 밖으로부터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신성한 공간으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 : 홍살문

129. 조선 중종 때의 명현인 정암 조광조 선생을 비롯하여 유학자로 식견이 높았던 방은 조광보, 희곡 조광좌, 음애 이자 선생 등 네 분이 도의로 친분을 맺고 은거하며 노년생활을 즐기기 위해 기흥구 지곡동 두암산에 정자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정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 사은정

130. 용인에는 나라에서 세운 관학으로 용인향교와 양지향교의 2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세운 사학으로 3개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워진 이 3개의 서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충렬서원, 심곡서원, 한천서원

131. 사적 제329호로 지정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의 고려시대 요지는 가마 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달 과정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서리 가마터를 통해 고려 초기부터 만들어졌음이 확인된 도자기는 어떤 것일까요?

정답 : 백자

132. 도자기를 가마에 넣어 구울 때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큰 그릇에 도자기를 넣어 잡물, 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갑발

133. 백자 중 무늬가 없는 것은 순백자라고 하고, 푸른색을 내는 코발트로 그린 것은 ‘청화백자’라 합니다. 그럼 산화철, 즉 녹슨 철을 갈아서 물에 갠 다음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갈색의 그림이 나타나게 하는 백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철화백자

134.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와 기흥구 동백동 사이에 있는 산성으로 최근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 무력 장군이 쌓았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사람들에게는 마고할미가 하룻밤에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이 산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할미산성

135. 왕이나 왕비, 또는 높은 관직을 했던 사람의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 죽은 이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대개 무덤 남동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령의 길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에 한하여 이 비석을 세우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비석의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나요?

정답 : 신도비

136.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제사적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는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과 노비 등을 내렸으며 총렬서원과 심곡서원도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소수서원은 이것의 시초이며 이러한 특전을 부여받은 국가공인 서원을 무슨 서원이라고 했나요?

정답 : 사액서원